

7/5/20

설교 제목: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 개명과 할례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7 장 1-27 절

- (창 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 (창 17: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 (창 17: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창 17: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 (창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 (창 17: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창 17: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창 17: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 (창 17: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 (창 17: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 (창 17: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 (창 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 (창 17: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 (창 17: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 (창 17: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 (창 17: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 (창 17: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절관주** 창 18:10
- (창 17: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절관주** 창 16:10
- (창 17: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 (창 17: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 (창 17: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 (창 17:24)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구십구 세였고
- (창 17: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십삼 세였더라
- (창 17:26)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 (창 17: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람이 하갈과의 사이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게 폭 빠져 사는 13 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나이 99 세,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지 13 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창 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3 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첫마디로 당신은 엘 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니 언약을 믿으라고, 당신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전능함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것이니 믿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완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의 증표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언약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 17: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17: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입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데라는 아브람이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 나난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어 가문을 빛내는 높은 자가 되라는 바람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데라의 소망대로 나난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람을 택하여 언약을 주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람은 도착한 순간부터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라도 아브람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데라가 단을 쌓으며 난나 신을 섬기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대로 하되 대상만 난나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가나안이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던 사실, 또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사실 등등 일련의 그의 행동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북부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 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신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렸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상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게 함으로써 아브람에게 불신의 삶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언약을 확증하고 동시에 그를 통해 이루실 구원 대장정의 시작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개명은 아브람 개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언약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을 또 반복하십니다.

(창 17: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8) 내가 나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물론이거니와 종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개명과 함께 주시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창 17: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 17: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17: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 17: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 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모든 더러운 것은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 흘리는 정결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이방인과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몸의 징표를 보고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래의 이름도 개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창 17: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창 17: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래의 뜻은 '나의 공주' '여주인'이고 사라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이 99 세인 자신과 경수가 낳긴 89 세의 사래가 어떻게 아들을 갖을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 17: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 17: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는 것을 포기하고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 난
이스마엘이 대를 이어갈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며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낳을 아들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 17: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 17: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창 17: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 17: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사라가 정녕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창 17: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창 17:24)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구십구 세였고

(창 17: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십삼 세였더라

(창 17:26)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창 17: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정결 의식으로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게 하신데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할례에는 사람의 혈통을 자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롬 4: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롬 4: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롬 4: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롬 4:10)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롬 4: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는 거듭나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하여 새언약에 참여하는 정결 의식인 세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골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 (골 2: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 (골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 (골 2: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 (골 2: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 (골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는 새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언약의 증표를 지니시기 바랍니다.